

“한국 떠나겠다”는 한 거장의 절망



홍경안 역
시시일각

미술인들은 영상이나 사진 등의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전시를 기록한다. 그림과 설명(비평)을 엮은 인쇄물인 ‘도록’(圖錄)도 그 중 하나다. 창작 여정에 관한 포괄적인 문서이자, 한 전시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임을 알기 때문이다.

미술관을 비롯한 미술 관련 기관들 또한 도록 제작에 공을 들인다. 그 자체를 예술 생태의 일부로 인식하며 또 다른 형태의 전시로 본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예술가와 큐레이터의 지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을 보존하기 위해 고민하는 한편 오류나 실수엔 상당히 엄격하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김구림(88) 작가의 국립현대미술관 회고전(김구림 전, 2023.8.25.~2024.2.12, 서울관) 도록은 그런 기본 개념이 거의 없다. 불빛이 들어오는 컬러 작품을 흑백처럼 둔갑시켰고, 하얀 바탕의 작품들을 누런색 배경으로 바꿔 놓았다. 심지어 작품 전체를 어둡게 덮어 원본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창작’해 냈

다. 이게 과연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에 서 만든 것인가 싶을 정도다.

작품의 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트리밍(trimming)을 가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유지’에 위배된다. 원칙적으로 법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구림의 도록 속 작품들은 ‘원작 훼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게 변형돼 있다.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차례에 걸쳐 도록 수정 혹은 재발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작가가 교정을 보고 승인한 사항이 누락돼 작가에게 있다는 식인 모양이다.

중요한 건 도록 편집자가 김구림의 작품을 재료 삼아 자신만의 ‘예술 행위’(?)를 펼칠 동안 관리 감독의 주체인 미술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작가의 허락을 받았다는 미술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예사가 보기에 원작과 다르다면 바로잡아야 했다.

문제는 소통 거부다. 미술관에서 발간한 것이니만큼 도록에 대한 최종 책임은 김성희 관장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면담 요청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관장으

로 임명된 지 이제 반년 남짓이니 할 일도 많을 것이다. 다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남을 청해도 그랬을까.

김구림은 한국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원로 작가다. 국제적 인지도를 지닌 한국 실험 미술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런 그가 지난달 28일 평창동 작업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엔 지난 2월 막을 내린 초대전 당시 출품하려던 작품이 불허되고, 작가의 예술세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전시 구성 등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엉터리 도록의 출판과 대화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상처 난 자존심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일 것이다.

현 사태를 바라보는 미술계의 시각은 곱지 않다. 오정은 미술평론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위상과 권위에 걸맞은 태도로 미술가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갈등을 풀어나가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기획자 김찬동은 지난 1일자 한 칼럼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시비로 절필하고 고국을 떠나 쓸쓸히 작고한 천경자 화백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적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곱씹어야 할 발언들이다. /미술평론가

연금개혁과 ‘폭탄 돌리기’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국회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9%의 보험료율을 3~4%포인트(p) 올리고,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거나 10%p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금 고갈을 7~8년 늦출 뿐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그조차 시급하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쳤다. 출범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40%까지 내려왔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에게 비용 부담을 넘겨주는 구조인 이상 출생률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기금 고갈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출생률 감소세는 이례적이지 만, 소득 증가에 따른 출생률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서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도 출생률 감소로 공적 연금의 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 사이에 퍼진 불신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의 책임은 관련 법안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젊은 세대 사이에선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인식이 많다. 납입액은 앞선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으로, 연금개혁은 고령자 부양을 위한 증세로 여겨진다.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은 지지율을 담보로 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설계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따른 출생률

감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도입 이후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의 역할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실패해서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재분배하고 소득 규모에 무관한 최소한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기금 고갈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연금 제도의 구조를 손보는 연금개혁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이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사이에 만연한 오해를 풀어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수치만 조정해가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게 된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4일 (음 2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일하는 데 한계를 느껴도 건강하니 감사할 뿐이다. 48년생 좋은 결과를 보려면 신중해야 할 것. 60년생 재혼 생활은 이해와 타협의 연속이다. 72년생 소우주인 인간에게 하늘은 말이 없다. 84년생 일어난 것들을 우려내서 마셔본다.
- 소** 37년생 선물로 인해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 49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살 수 없으니 적당히. 61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73년생 생각을 바꾸면 앞에서 길이 보인다. 85년생 친구를 생각하니 반가운 전화가 온다.
- 호랑이** 38년생 나보다 어린 사람과의 갈등은 피하는 것이 상책. 50년생 귀신은 다 들고 속으로 품는 생각까지 환히 보고 있다. 6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한 날. 74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86년생 금상첨화의 경경사가 온다.
- 토끼** 39년생 배우자와 소풍 가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51년생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시기를 받을 수 있다. 63년생 경험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75년생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 수가. 87년생 삶은 짧지만 시간은 영원.
- 용** 40년생 급각살이나 운동할 때 다리 다침을 조심. 52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해결책은 있을 것. 64년생 부인 자랑하려거든 지갑도 함께 열고 해안. 76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으니 신념을 갖자. 88년생 눈비가 몰아쳐도 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 뱀** 41년생 가정의 화목이 근본일 텐데. 53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65년생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꽤 길다. 77년생 술에 의지하지만 폭식 과식은 금물이다. 89년생 얼룩진 옷은 세탁해야 깨끗해질 것 아닌가.
- 말** 42년생 이웃 간에 땅 문제로 송사여 휘말리지 않도록. 54년생 모인의 초대가 있었으니 유혹하는 것이니 현혹되지 마라. 66년생 기다리지 말고 이력서를 내도록. 78년생 남의 탓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 90년생 새로운 희망을 책에서 얻다.
- 양** 43년생 지나간 일들로 곤란한 일이 생기니 서류를 재차 챙겨라. 55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는다. 67년생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 같은 멀다. 79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으로 갈 수 있다. 91년생 차가운 이미지를 벗어보자.
- 원숭이** 44년생 의미 없는 선물은 결국 쓰레기만 된다. 56년생 명에도 실속도 챙기는 날. 68년생 우물 속 개구리처럼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80년생 매력 있는 여성의 유혹이 있으니 고민. 92년생 종일 부부 사이가 삐걱댄다.
- 닭** 45년생 외국 여행은 지출이 많아져 후회가 발생한다. 57년생 밖은 꽃이 피었으나 내 마음은 찬 바람이 불고 있다. 69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81년생 어디를 가더라도 신뢰받는다. 93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계약은 중시 있게.
- 개** 46년생 미련보다는 자식의 헛된 희망에 편승하지 않도록. 58년생 푸른 바다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70년생 매일 뜨는 태양도 누군가는 다시 보길 원한다. 82년생 사람의 성격이 팔자라는데. 94년생 주식공부를 해서 도박이 되지 않도록.
- 돼지** 47년생 인생이 고달파도 살아있으니 행복. 59년생 재물로 인한 집착과 분별 심을 구분해야 발전. 71년생 하루살이는 내일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다. 83년생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 95년생 운전할 때 미연도로에서는 나부터 양보해야.



김상회의四季 운 만들기

이부진李富珍 경술생庚戌生 호텔신라사장. 덕불고 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은 외롭지 않고 이웃이 그 선행을 안다. 지난 2월 초에 기상악화로 호텔 제주신라에서 선행을 한 뉴스를 보고 필자의 지인이 보낸 글을 옮겨본다. 식신생재食神生財 배불면 그 이상으로 다시 재물이 들어온다. 예수도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덩치큰 낙타가 좁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했다. 이부진 호텔 신라사장은 먼훗날 천국天國 천당天堂에 갈 수 있을것이라며 전해왔다. 개인에게도 어떤날 어떤 경우에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다.

운들이 들어오는 해라라는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나에게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이며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운세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대운이 오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작년에 운이 바뀌는 시점에 상담은 음식점 사장님이 생각난다. 대운이 그리 좋다고 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너무 쾌념할 일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가끔 그 사장님의 음식점에 가보곤 했는데 사장님은 언제 어떤 손님이 와도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다.

그래서인지 음식점에는 항상 손님이 많았다. 비결에 대해서는 사장님 말이 인상적이었다. 자기 집도 그렇지만 어떤 음식점이나 음식이 특별하지는 않단다. 그렇다면 손님들이 어떤 음식점에 가고 싶을까 생각하니 답이 나오더라. 활짝 웃으며 진심으로 손님을 반기는 곳에서 밥을 먹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이다. 그런 노력이 손님을 끌어온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면 나에게도 좋은 운세가 열린다. 운세도 좋은 시기가 있고 때로는 탐탁치 않은 시기가 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어떤 운세가 나에게 왔을 때를 생각해볼길 하는 마음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김승중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06호 |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10호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